

대국민사과

관련 기사

[한겨레]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에 대한 코멘트[1]

- 현재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언급과 행동이 없었다"며 "과거 비자금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건희 회장이 사과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전례에 견줘서도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